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사실상 무산

제주도지원위 불수용 결정... “행안부 의견 존중”
정부 부정적 의견 확고해 의원입법 추진도 불투명
권역조정 등은 폐기 가능성... 행정력·혈세 소모만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던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제주도지사 등에게 통보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지원위 위원들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

입에 부정적인 중앙부처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도 도입 취지(조직 슬림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로 지목됐다”며 “행정시장 예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제도개선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불수용)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시장 예고제는 제주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조항을 보면,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하면 정부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도지사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행정시별

각 1명씩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의 규정으로, 2006년 5·31 지방선거 단 한번만 적용됐을 뿐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행정시장 직선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의원 입법이라는 방법이 하나 남아 있긴 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불수용 의견이 확고한 상태인데다, 20대 국회도 8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아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결국 수년간 진행했던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와 활동들이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한 소모전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민선5기인 2011년부터 논의를 시작, 연구용역과 도민공청회, 도민설명회, 도민 선호도 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동의안이 제출되고 부결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2017년에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구역 재조정 ▷직선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의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행위들이 물거품이 됐다.

허 국장은 “이번 (불수용 결정) 의미는 특별법 제도개선 절차가 중단된 것”이라며 “의원 입법은 새로운 정치 과정이 될 수 있다. 별개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제주도, ASF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현장 운영상황 점검 속 방역물자·인력 등 지원

경보단계 ‘주의’ → ‘심각’ 격상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전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총력 대응을 위해 원희룡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체계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경각심을 갖고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물방역과, 재난대응과, 보건건강위생과, 생활환경과, 자치행정과, 자치경찰단, 공보관 등 총 7개부서가 참여한다.

이를 부서는 행정지원총괄반, 의료지원반, 현장환경정비반, 자원봉사지원반, 현장통제반, 재난수습홍보반으로 나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방역현장 운영 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조치를 포함해 ▷방역물자·인력 등 지원 ▷살처분 등 방역인력에 대한 응급지원 방안 점검 ▷현장 환경 정비·자원봉사자 지원 관리 ▷방역관련 위반사항 수사 ▷방역대책 추진사항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제주도에서 비상계엄 수준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전 세계 제주인 화합의 장 10월 12~14일 세계제주인대회

전 세계 제주인들의 화합의 장인 ‘세계 제주인대회’가 첫 선을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세계제주인대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도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제주인대회는 2014년 10월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에서 대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더 커지는 제주, 글로벌 제주인 하나 되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대회에는 15개국에서 500여명의 재외도민이 참가하게 된다.

미국, 일본, 호주, 남미 등 재외도민회가 결성된 지역 외에도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도민들이 고향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사할린 출신 2~3세대 재외도민 31명을 초청해 고향 제주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도민과 국내



가을의 성찬 즐기는 참새들. 가을이 무르익으며 들녘에는 황금색 물결로 가득하다. 26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들녘에서 한 무리의 참새들이 낱알을 흠쳐 먹다가 인기척에 놀라 공중으로 날아 오르고 있다.

외 재외도민들이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국내 거주 재외도민은 280여명이 참여하고, 부산·서부경남 및 광주·호남 지역의 출향 해녀 32명도 초대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대회기간 주행사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로비에 마련된다. 고향 제주를 떠나 타지에 정착해야만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글로벌 제주인 이주사 전시

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마크인 JQ인증 제품 및 제주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 제품 위주의 ‘글로벌 제주제품 전시·판매전’이 진행된다.

조상윤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2019 제8회 선흘곶 람사르습지 생태문화체험

동백동산에서 드디어 나뉘는디

10월 3일(목) ~ 6일(일)

동백동산습지센터 및 동백동산 일대

문의 : 선흘리사무소 T. 064-783-8885

축제기간동안 축제장소인 동백동산습지센터에는 차량주차가 불가하므로 순환버스를 이용해주세요.

순환버스 운영노선
함덕서우봉해변 주차장→낙선동 4·3성터→선흘1리 리사무소→마을운동장→동백동산습지센터
① 함덕서우봉해변 주차장 출발 09:00 ~ 16:00 (30분간격 운행)
② 동백동산습지센터 출발 10:30 ~ 17:30 (30분간격 운행)

주최·주관 선흘곶동백동산위원회 (선흘리·제주신문)

후원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여기관 제주시, 조천읍,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생태관광네트워크,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시조천읍람사르습지지역관리위원회,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난대야생대산림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 행사기간 주요 공연

10. 03(목)
10:30~11:30 개막식
길트기 / 브라스밴드
북촌동굴락난타 / 사우스카니발
14:30~ 우창수와 개종이예술단
15:00~ 버블팡팡 마린스
15:30~ 선흘학교마당

10. 04(금)
15:00~ 윤주의 연극놀이터
‘꽃자랑 할망개비의 소원’

10. 05(토)
13:00~ 소금인형
13:30~ 법사학교 ‘구치굴라 브리워’
14:00~ 어쿠스틱 듀오 ‘유로8한승규’
15:00~ 피엔아이컴퍼니 창작극
‘월매니의 이야기치마’

10. 06(일)
15:00~ 작은연극 ‘제주바다’드라마이기
15:30~17:00 폐막식
허계생과 동네꼬마들
선흘노래자랑 ‘내가 제일 잘 나가’
희 라인댄스

※행사기간 중 다양한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 환경워크숍

10. 05(토) 10:00~12:00
청소년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는 ‘환경토론회’
- 생명의 숲 꽃자랑! 자연과 사람, 공존을 위한 길 찾기

10. 06(일) 13:30~
술가와 머털도사가 함께하는 꽃자랑사랑 그린콘서트 ‘꽃자랑에 부는 바람’
- 꽃자랑작은학교 문공포 선생님과 술가의 제주 환경이야기

● 생태관광프로그램 ‘인연 II’

10/03 목요일 12:00~14:30
김효은 작가와 동백동산 갤러리피 여행 ‘술, 바람, 물을 쓰고 그리다’

10/04 금요일 11:30~14:00
정소연 저자와 만나는 숲속 그림 ‘그림을 걸다 창을 내다’

10/05 토요일 10:00~13:00
환경운동가들과의 ‘우리가 숲을 만나는 법’

10/06 일요일 10:00~13:00
선흘소녀 현지랑 떠나는 감성 동백동산 ‘나무 안녕?’

※환경워크숍과 인연 II는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 10. 01(화) 예약마감
접수 | ramsar.co.kr 또는 전화접수
문의 | 064-784-9446 / 010-6600-1196

● 동백동산 보존 채색 동식물 세밀화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제주시 조천읍 동백로 77 동백동산습지센터 생라터)

● 동백동산 보존 포어
접수 ramsar.co.kr / raingirl91@naver.com